

西周 金文 月相에 대한 考察

朴惠淑*

<목 차>

1. 序言
2. 月相定點說
3. 月相四分說
4. 月相二系說
5. 結語

1. 序 言

西周 青銅器는 銘文의 내용, 기물의 형태, 문양을 통해서 그 年代를 추정할 수 있다. 기물의 형태와 문양은 일반적으로 표준기의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그 기물의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물의 형태와 문양에 앞서 더욱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銘文의 내용이다. 銘文 내용에 曆日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 시기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다. 金文에서는 年, 月, 干支, 月相의 순서로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年, 月, 干支만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曆日의 어떤 요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銘文도 상당수이다. 그렇다면 年, 月, 干支, 月相이 기록되어 있는 명문의 연대는 모두 역법과 부합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다. 西周 諸王의 在位年度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銘文에 기록된 年代는 어느 왕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年代를 추정하더라도 西周

* 崇實大學校 講師

曆法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銘文이더라도 그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西周시기 金文의 年代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전에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던 月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月相이 가리키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西周시기 年代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月相에 대한 연구는 文獻에 기록된 月相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文獻상의 月相 연구를 토대로 金文에 기록된 月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는 金文에 기록되어 있는 月相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金文에 나오는 月相은 初吉, 既望, 既生霸, 既死霸, 旁死霸로 모두 5종류이다. 그 중에서 旁死霸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銘文에 자주 보이며 旁死霸는 西周末期의 《晋侯蘇鐘》에만 기록되어 있다. 金文에서 月相 명사로 시간을 처음으로 기록한 기물은 保卣¹⁾와 保尊이다. 成王시기 기물인 保卣와 保尊 銘文에는 既望이라는 月相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保卣》：“乙卯，王令保及殷東國五侯，……邁于四方，會王大祀，祐于周，在二月既望。”

銘文에서 먼저 干支인 乙卯로 날짜를 기록하고 명문 마지막에 “二月既望”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二月既望”이 가리키는 시기가 乙卯를 포함하는 일정기간이거나 乙卯日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既望은 月相 명사로 殷代 甲骨文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周代에 사용되기 시작한 紀日 명사이다. 月相으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西周 成王시기에 예악, 정치, 문화제도를 정비한 이후부터 시간을 기록하는 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康王시기에 이르러서는 月相 명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 명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月相은 西周시기부터 春秋말년까지 시간을 기록하는 용어로 쓰였다. 金文에 나오는 5가지 月相 중에서 旁死霸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銘文에 자주 보이며 旁死霸는 西周末期의 《晋侯蘇鐘》에만 기록되어 있다. 西周시기 月相은 金文에 나오는 5가지 외에도 문헌에 등

1) 西周 초기 기물로 1948년 河南洛陽에서 출토되었으며, 현재 上海博物館에 소장.

장하는 朔, 朏, 哉生魄, 哉死魄 등이 있으며 金文에 등장하는 初吉과 既望도 문헌에서 보인다. 이로 볼 때 文獻에 등장하는 월상 용어는 金文에서 사용된 월상에서 변화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金文과 文獻의 月相 명사는 系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해서 연구해야지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문헌자료를 근거로 月相을 연구한 것은 漢代 劉歆에서 시작되었다. 劉歆은 既死霸는 朔으로 既生霸는 望으로, 生霸 다음 날을 既旁生霸로 보았다. 후대 董作賓, 張聞玉 등이 劉歆의 설을 따르고 있다. 漢代부터 시작된 문헌중의 月相에 대한 연구는 月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연구와 월상 명사가 가리키는 시간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후 王國維에 이르러 金文 중의 月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金文 월상이 가리키는 시기에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初吉, 既望, 既生霸, 既死霸 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初吉의 「吉」은 「朔」을 말하며 '초하루'를 뜻한다. 文獻에도 많은 용례가 보인다²⁾. 初吉 외에도 月吉과 既吉도 모두 朔日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 그러나 初吉이 반드시 朔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月初라는 것은 분명하다. 初吉을 朔日이라 단정하지 못하는 것은 《蔡侯編鐘》과 《蔡侯申尊》, 《蔡侯申盤》 銘文에 나오는 初吉이 각각 初三日과 初八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³⁾. 既望은 月相 명사 중에서 異論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望」의 다음 날로 보고 있다. 《釋名》에서 「望」은 '月滿之名也'로 풀이하고 있다⁴⁾. 여기에서 추론해 보면 既望은 望의 다음날이 되므로 적은 달은 16일이 되며, 큰 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文字 자체적으로 보아도 「既」는 「已」와 같으므로, 既望은 「望」 이후를 가리키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既生霸, 既死霸는 논쟁이 가장 많은 月相 명사이다. 「霸」는 고대로부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다. 「月質」로 보는 설⁵⁾과 「月光」으로 보는 설⁶⁾이 있다. 古文字 자료를 통해

2) 《周禮·太宰》：“正月之吉。”，鄭注：“吉爲朔日。”、《詩·小明》：“二月初吉。”，毛傳：“初吉，朔日也。”、《論語·鄉黨》：“吉月必朝服而朝。”，何晏集解：“孔(安國)曰：‘吉月，月朔也。’”

3) 《蔡侯編鐘》：“惟正月初吉孟庚”、《蔡侯申尊》·《蔡侯申盤》：“元年正月初吉辛亥”

4) 《釋名·釋天》：“望，月滿之名也。月大十六日，小十五日，日在東月在西，遙相望也。”

5) 《逸周書·世俘》：“越若來二月既死魄。”，孔晁注：“朔後爲死魄。”、《漢書·律曆志》引《武成》：“惟一月壬辰旁死魄。”，顏師古注引孟康說云：“魄，月質也。”

서 보면 후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既生霸는 「望」이 아니고 「朔」과 「望」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 既死霸는 「朔」이 아니며 「望」 다음과 「朔」 이전 시기를 말한다⁷⁾. 그러므로 既生霸와 既死霸의 대략적인 시기 범위는 既生霸 한달의 반 이내를 가리키며 既死霸는 한달의 반 이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月相과 少數民族의 역사자료를 결합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既生霸와 既死霸는 月弦을 기점으로 해서 既生霸는 上弦이 되고 既死霸는 下弦이 된다(羅琨 1998). 既生霸와 既死霸는 모두 「既」자가 들어 있는데 이는 既望과 같다. 既望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既望은 「望」 다음날을 말하므로 여기에서 미루어 추측해 보면 既生霸와 既死霸는 生霸와 死霸 다음날로 추론할 수 있다. 文字 자체를 가지고 풀이해 보면 이상과 같은 정의내릴 수 있지만 문헌과 금문자료 속에서 月相 명사가 가리키는 시기에 대해서는 定點說, 四分說, 二系說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月相定點說

月相定點說은 月相이 한 달 중 어느 한 날을 가리킨다는 견해로 西漢시기 劉歆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劉歆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曆日자료를 통해서 月相 명사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날짜가 있다고 보았다. 劉歆이 주장하는 定點說의 핵심은 既死霸는 朔으로 既生霸는 望으로, 生霸 다음 날을 既旁生霸로 보는 이론이다⁸⁾.

6) 《說文》：“霸，月始生霸然也。”、《書·康誥》：“惟三月，哉生魄。”，馬融云：“魄，朏也。”

7) 《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에서 재인용

8) 劉歆：“死霸，朔也；生霸，望也。”《月相和西周金文月相語研究》에서 재인용

死 霸	朔日, 初一
生 霸	望, 15日

清代 俞樾은 劉歆의 定點說이 제시하고 있는 날짜가 哉生霸를 제외하고는 曆日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俞樾은 《生霸死霸考》에서 哉生霸는 3일을 가리키며 朏와 같다고 주장하고 劉歆이 정한 시기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⁹⁾.

死霸	晦日
既死霸	朔日
旁死霸	二日
哉生霸, 朏	三日
既生霸, 望	十五日
旁生霸	十六日
既旁生霸	十七日

俞樾의 수정을 거친 定點說은 더욱 견고해졌다. 劉歆과 俞樾은 문헌자료를 근거로 月相이 가리키는 시기를 연구했으나, 劉師培에 이르러서는 金文에서 역일을 표기하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銅器 斷代 연구에 활용하였다. 1910년 《周代金年月考》¹⁰⁾에서 月相을 포함하는 曆日이 기록된 30여 편의 銘文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당시에는 俞樾의 《生霸死霸考》이 이미 발표된 상태였기 때문에 劉師培는 俞樾의 定點說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劉師培의 月相에 대한 이해가 俞樾의 견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9) 俞樾《生霸死霸考》：“惟以古義言之，則霸者月之光也，朔爲死霸之極，望爲生霸之極。以三統術言之，則霸者月之無光處也，朔爲死霸之始，望爲生霸之始。其于古義顯然反矣” 《金文斷代方法探微》에서 재인용

10) 《國粹學報》第6年11號. 《金文斷代方法探微》에서 재인용.

때문이다. 그러나 銘文에 기록된 月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다.

初吉	朔日, 二日, 四日, 六日, 十二日, 十五日
既死霸	朔日
既望	十五日, 十六日,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既生霸	十五日, 十六日

劉師培는 金文에 기록된 月相의 내용에 대해서는 定點說을 영향을 받고 있으나 劉師培 자신은 어느 정도 定點說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유사배의 견해는 王國維의 四分說이 제기될 수 있는 발판이 된 셈이다. 또한 그동안 金文 연구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었던 月相 문제를 金文 斷代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역할을 했다. 劉師培 이후 王國維는 俞樾과 같은 《生霸死霸考》라는 제목으로 月相四分說을 주장하게 된다. 王國維의 문장이 발표된 이후부터 月相문제에 대해 定點說과 分段說로 나뉘어서 논쟁하기 시작한다.

定點說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는 月相이 가리키는 시기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定點說은 月相定點舊說과 月相定點新說로 크게 나누어진다. 月相定點舊說은 既死霸를 既望 전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劉歆과 俞樾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董作賓¹¹⁾, 陳夢家¹²⁾, 張汝舟, 張聞玉, 黃璋健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11) 董作賓〈四分一月說辨正〉《董作賓先生全集》：“在殷代月與日之關係尚疎，其時有無定點月相，以未見於甲骨文字之記錄，不能臆斷……至周初載籍乃有生霸死霸之名，定其在太陽月中之某一日，即某一點。其時所用之名稱，已不儘爲月相，至金文乃更有初吉之一名，以代替死霸，是明明易不吉之詞爲吉語也。至漢以後，乃專以朔日爲月始之定點，而更有二日至二十九者三十日之排次。”

12) 陳夢家《西周銅器斷代》：“由上所述，可以小結如下：月象應是定點的，表示月中魄之盈虧生死；既死霸是初一，月魄死盡了；月吉、初吉是初三，月魄始生未盛；既生霸十二、三日，月魄始生而未滿；既望是月魄生滿。這些推定……尚待以後新出的銘文加以修正，才可加以確定。”

	董作賓	陳夢家	張汝舟 · 張聞玉	黃彰建
初吉	1일	3일	1일	.
既死霸	1일	1일	1일	1일
既生霸	15일	12, 13일	15일	16일 또는 17일
既望	16, 17, 18일	15, 16일	16일	16일 또는 17일

月相定點新說은 既死霸를 既望 이후로 보는 견해로 이는 劉歆과 俞樾의 이론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莫非斯¹³⁾, 勞干¹⁴⁾, 劉啓益¹⁵⁾, 李仲操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莫非斯	勞干	劉啓益	李仲操
初吉	1일	1일 ~ 3일	2일 또는 3일	1일
既生霸	15일	4일 ~ 6일	3일 또는 4일	9일
既望	16일	14일 ~ 16일	16 또는 17, 18일	14일
既死霸	29일 또는 30일	19일 ~ 22일	29일 또는 30일	23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定點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월상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13) 莫非斯 《西周曆朔新譜及其他》. 葉正渤 《20世紀以來西周金文月相問題研究綜述》에서 재인용
 14) 勞干 《周初年代問題與月相問題的新看法》. 葉正渤 《20世紀以來西周金文月相問題研究綜述》에서 재인용
 15) 劉啓益 《西周金文中的月相與共和宣幽紀年銅器》: “我們認為月相是指固定的一天, 它們所代表的時日是: 初吉, 卽朔的第一天, 當陰曆初二或初三; 既生霸, 月出的次日, 當陰曆初三或初四; 既望, 月圓的次日, 當陰曆十六、十七, 有時十八; 既死霸卽月底, 當陰曆二十九或三十。”

날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가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分段說에 받아 들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金文과 典籍에 기록되어 있는 月相은 干支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도 보인다. 定點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月相은 있지만 干支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月相은 고정된 한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月相 중에는 月相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어느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月相이 고정된 날짜를 가리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金文 중에서도 날짜를 기록하는 干支는 대부분이 月相과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月相分段說을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金文과 典籍 중의 月相으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예를 보면, 月相 다음에는 干支가 오는 경우도 있고 干支가 없는 경우도 있다,

《遼篇》：“唯六月既生霸，穆穆王在□京。”

《仲柎父簋》：“唯六月初吉，師湯父有司仲柎父作寶簋。

《書·顧命》：“惟四月哉生魄，王不懌。”

《書·康誥》：“惟三月哉生魄，周公初基，作新大邑于東國洛。”

月相만이 기록되어 있고 干支가 없다는 것은 月相이 특정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干支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月相 가리키는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다.

《書·召誥》：“惟二月既望，越六日乙未，王朝步自周，則至于豐。”

明文堂의 《書經》¹⁶⁾에서는 “2월16일에서 엿새 지난 을미날에, 임금님은 아침에 주나라 도읍으로부터 걸으시어 풍 땅으로 오셨다.”라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越六日 이후에 乙未라는 부분에서 越六日乙未 앞에 나온 月相 명사인 既望은 특정

16) 金學主, 《新完譯書經》, 明文堂, 2002년

한 날인 2월16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문장의 구조상 기망을 특정한 날로 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定點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는 月相이 특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越幾日」을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상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新舊定點說 모두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四分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3. 月相四分說

俞樾이 定點說을 지지하고 劉師培가 金文 曆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왕국유가 전대미문의 月相四分說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金文에서의 月相 四分說은 王國維가 그 길을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國維는 《生霸四霸考》에서 月相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달을 네 시기로 나누어서 初吉, 既生霸, 既望, 既死霸의 순서로 보는 것이 그의 핵심이론이다¹⁷⁾. 이후로 四分說은 이후에 一月四分說 또는 月相四分說이라고도 한다.

初吉	1일~7,8일
既生霸	8,9일~14,15일
既望	15,16일 ~ 22,23일
既死霸	23일 ~ 晦(그믐)

王國維의 四分(一月)說은 한달을 네시기로 구분하고, 매 시기는 7,8로 되어 있

17) 王國維《生霸死霸考》：“余覽古器物銘，而得古之所以名日者凡四：曰初吉，曰既生霸，曰既望，曰既死霸。古者蓋分一月之日爲四分：一曰初吉，謂自一日至七八日也；二曰既生霸，謂自八九日以降至十四五日也；三曰既望，謂十五六日以後至二十二日；四曰既死霸，謂二十三日以後至于晦也。”

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定點說에서 月相이 定點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예로 들고 있는 《書·召誥》의 “惟二月既望，越六日乙未，王朝步自周，則至于豐。”중에서 “越六日乙未”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왕국유는 각 월상의 7-8일은 그 월상의 시기를 가리키며, 각 월상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도 그 月相名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書·召誥》의 “惟二月既望，越六日乙未”는 既望 첫째 날에서 6일이 지난 乙未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왕국유의 四分說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왕국유의 四分說을 전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四分說은 한 달을 네 시기로 나누는 것과 각각의 월상이 가리키는 시기 중에서 첫 번째 날을 명명하기도 한다는 이론이다.

후대 학자 중에서 吳其昌, 郭沫若, 周法高, 白川靜 등은 왕국유의 四分說을 따르고 있다. 吳其昌은 生霸, 死霸, 既望, 初吉에 대한 이해는 馬融, 劉歆, 孟康부터 俞樾에 이르기까지 연구해왔지만 상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왕국유에 이르러 그 논쟁의 결론을 보게 된 것으로 여겼다. 吳其昌은 年, 月, 月相, 干支, 네 가지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西周時期 器物44기의 銘文을 중심으로 《西周曆朔疏證》을 발표한 다. 四分說을 지지하고 있는 郭沫若도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에 수록된 《令簋》 銘文 考釋에서 既死霸는 월말의 7,8일을 가리키며, 周代 사람들은 한달을 네 시기로 나누어서 初吉, 既生霸, 既望, 既死霸로 명명했으며 지금의 週日制와 비슷하다고 四分說을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周法高는 定點說을 주장하고 있는 董作賓, 勞干, 劉啓益의 설이 金文 曆日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평을 가했다. 周法高는 〈論西周月相與西周王年〉에서 年, 月, 月相, 干支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50여기의 器物 銘文은 모두 275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王國維의 四分說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물론 50여기의 器物 銘文 중에서 初吉이 기록되어 있는 3조 만이 曆法에 부합되지 않았다. 일본 학자인 白川靜은 〈曆法研究的方法〉에서 왕국유의 四分說이 月相문제에 의한 의혹을 풀어주었으며, 董作賓의 二分一月

18) 王國維《生霸死霸考》：“初吉、既生霸、既望既、死霸各有七日或八日，哉生魄、旁生霸、旁死霸各有五若六日，而第一日亦得專其名，……欲精紀其日，則先紀諸名之第一日，而又云云 幾日某某以定之，如《武成》、《召誥》是也”

설은 金文 중에서 월상은 初一, 初二, 初三을 가리키는 시기와 15, 16, 17일 만을 가리키는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廷禮, 冊命을 이 날짜에만 거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하며 四分說을 지지하고 있다. 白川靜은 吳其昌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1980년대 초에 방희정은 四分說이 月地의 운행규율에 부합되며 믿을만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四分說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도 적지 않다. 董作賓외에도 唐蘭 역시 四分說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西周시기는 初吉과 既望으로 구분한 二分一月설을 주장하였다. 董作賓은 사분설이 《逸周書·世俘解》와는 완전히 저촉되므로 잘못된 견해라 비평했다. 또한 周代는 初吉과 既望으로 시간을 기록했으며, 初吉은 달의 上旬을 가리키며, 既望은 15,6일 이후의 약 10일간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11일에서 15일, 25일에서 다음 달 初吉 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점설에 반박하여 사분설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는 왕국유의 사분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4. 月相二系說

月相定點說과 月相四分說이 西周연대에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자, 夏商周斷代工程¹⁹⁾에서는 月相 연구에 이 두 가지 학설을 배제하고 새로운 月相二系說을 주장하고 있다. 月相二系說에 근거해서 편찬된 《西周金文曆譜》는 前期는 주로 文獻자료를 근거로 삼았으며, 中·後期는 曆日요소가 구비된 金文자료를 근거로 연구된 것으로 月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²⁰⁾.

19) 夏, 殷, 周代의 年代와 諸王 在位年度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西周金文의 月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金文斷代方法探微》에서 재인용.

初吉	1일에서 10일 사이에 출현
既生霸	새달에 처음 나타나는 滿月을 가리킴
既望	만월 다음 달빛이 아직 줄어들기 시작하기 전을 가리킴
既死霸	달의 모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달빛이 소실될 때까지를 가리킴

또한 月相 명사는 既生霸-既望-既死霸의 순서로 나타나며, 「既」는 “이미”라는 의미이며, 「望」은 “滿月”을 가리키며, 「霸」는 “光面”를 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初吉은 月相에서 제외되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既生霸와 初吉은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月相과 初吉을 다른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夏商周斷代工程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初吉은 다른 月相 명사와는 직접관련이 없으며, 다른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80년대에 陳久金에 의해서 제기된바 있다. 月相 명사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는 陳久金과 夏商周斷代工程 결과의 내용의 일치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夏商周斷代工程 연구결과는 初吉 외에 나머지 月相이 가리키는 시기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陳久金에 의하면 既生霸는 “已生霸”를 의미하며, 既死霸는 “已死霸”를 말하는 것으로 既生霸는 15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매달의 상반기이며, 既死霸는 晦日이나 朔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달의 하반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既生霸와 既死霸는 公名이며, 그 외의 月相 명칭은 구체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專名으로 보는 것이다. 陳久金の 公名과 專名에 대한 견해는 王國維가 《生霸死霸考》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다.

月相二系說이 제기되기 전부터 月相명사 중 初吉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 陳久金²¹⁾ 외에도 王勝利²²⁾, 馮時 등이 初吉의 吉日계통과 月相계통으로 분리해서 보기

21) 陳久金《西周月名日名考》. 葉正渤《月相和西周金文月相詁語研究》에서 재인용

22) 王勝利《西周曆法的月首、年首和記日詁語新探》. 葉正渤《月相和西周金文月相詁語研究》에서 재인용

시작했다.

	王勝利	馮時
既生霸	月初(朏 다음날) ~ 望일이 끝나는 기간	朏의 다음날 ~ 望일까지 上半月
既望	望日 다음날 ~ 殘月이 소실되는 기간	望 다음날 ~ 晦일까지 下半月
既死霸	殘月이 소실된 다음날 ~ 월말	朔日

王勝利는 달의 첫 번째吉日을 初吉이라 하며, 그 나머지는 月相 명사로 각 月相은 일정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馮時 역시 初吉과 月相을 다른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馮時는 西周 金文에서 시간을 기록하는 月相계통은 세 개의 定點月相인 晦, 朏, 望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았다. 이 세 개의 定點月相을 기준으로 既生霸, 既望, 既死霸의 기간을 정했다. 馮時는 既死霸, 旁死霸, 哉生霸, 望을 네 개의 定點으로 보고, 既生霸와 既望은 두 개의 時段으로 분류했다.

1999년에 夏商周斷代工程의 金文曆譜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北京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결과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四分說 또는 이와 유사한 학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定點說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初吉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했으나 다수의 학자들이 월 上旬 중의 하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 내용을 李學勤은 다음과 같이 귀납했다²³⁾.

初吉	初一, 初四, 初五, 初七, 初九, 初十日
既生霸	初三, 初五, 初十, 初十四日
既望	十八, 十九, 二十日
既死霸	二十日, 二十四, 二十八, 二十九日

23) 江林昌 《夏商周斷代工程金文曆譜研討會紀要》

위의 결과에 의하면 初吉과 既生霸가 중복되고 있다. 이는 初吉과 月相을 다른 계통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月相二系說에 가깝다. 그러나 既生霸, 既望, 既死霸의 순서를 명확히 한 것은 四分說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李學勤의 견해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二系說에 가깝다. 그러나 西周 金文에서 사용된 月相과 西周 曆法이 과연 月相二系說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5. 結語

西周 金文에서 자주 보이는 月相은 初吉, 既生霸, 既望, 既死霸, 旁死霸로 모두 5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旁死霸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銘文에 자주 보이며 旁死霸는 西周 末期의 《晉侯蘇鐘》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文獻에서는 初吉, 哉生魄, 既望, 朏, 旁死霸, 既死霸, 既旁生霸 등으로 金文의 月相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金文의 네 가지 月相을 기초로 해서 문헌에 나오는 여러 가지 月相으로 점차 변화,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월상이 가리키는 시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定點說, 四分說, 二系說로 귀납된다. 본고에서는 金文 중의 月相, 그 중에서도 서주 금문 중에 자주 보이는 初吉, 既生霸, 既望, 既死霸를 중심으로 월상이 가리키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月相定點說은 월상이 그 달의 어느 한 날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며, 月相四分說은 달 중의 얼마의 기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月相二系說은 初吉로 대표되는 吉日系統과 既生霸, 既望, 既死霸의 月相系統으로 분리해서 月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文獻 중의 月相은 모두 定點說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金文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四分說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月相이 나타내는 의미가 변화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月相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연구보다는 月相이 가리키는 시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먼저 定點說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定點說을 주장하는 견해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어느 하루를 가리키고 있다는 학설이 학자에 따라 날자가 다르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二系說에서는 月相을 두 가지 계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二系說의 계통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과연 그렇게 사용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또한 初吉을 月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에 初吉이 月相 명사가 아니라면 晉侯蘇鐘에 기록된 月相계열에 初吉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月相의 순서는 初吉, 既生霸, 既望, 既死霸로 보고 있는 王國維의 견해를 지지하며, 각 월상이 나타내는 시기도 王國維의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王國維는 한 달을 네 시기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각 月相이 가리키는 7-8일 중의 첫째 날 역시 그 月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王國維의 四分說이 金文 月相의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본다. 본고는 月相이 가리키는 시기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했다. 그러나 月相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月相의 의미에 대해서는 심화연구를 기대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陳初生 1987 《金文常用字典》，陝西人民出版社。
- 王文耀 1998 《簡明金文詞典》，上海辭書出版社。
- 白川靜 1989 《金文的世界》(溫天河·蔡哲茂 譯)，聯經出版事業公司，臺北。
- 洪家義 1988 《金文選注釋》，江蘇教育出版社。
- 唐 蘭 1986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中華書局。
- 董作賓 1977 《董作賓先生全集甲編》，臺灣藝文印書館。
- 杜勇·沈長雲 2002 《金文斷代方法探微》，人民出版社，北京。
- 吳其昌 2004 《金文曆朔疏證》，北京圖書館出版社。
- 李 勇 2004 《月齡曆譜與夏商周年代》，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
- 陳夢家 2004 《西周銅器斷代(上·下)》，中華書局，北京。
- 郭沫若 1982 《郭沫若全集》，人民出版社。
- 劉啓益 2002 《西周紀年》，廣東教育出版社。
- 彭裕商 2003 《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巴蜀書社，成都。
- 金學主 2002 《新完譯書經》，明文堂。
- 劉啓益 1984 〈西周金文中的月相與共和宣幽紀年銅器〉，《古文字研究》第9輯
1986 〈再談西周金文中的月相與西周銅器斷代—讀《西周金文和周歷的研究》後記〉，
《古文字研究》第13輯
- 黃彰建 1998 〈釋武成與金文月相〉，《歷史研究》，1998年 第2期
- 白光琦 1999 〈四分月說辯證〉，《考古與文物》1999年 第3期
- 張聞玉 1999 〈西周金文“初吉”之研究〉，《考古與文物》1999年 第3期
2000 〈“夏商周斷代”三題〉，《金筑大學學報》2000年 第4期
- 江林昌 1999 〈夏商周斷代工程金文曆譜研討會紀要〉，《文物》1999年 第6期
- 彭裕商 1999 〈關於西周金文月相的一點意見〉，《中國文化研究》第24期
- 王文耀 2001 〈金文月相的定點析證〉，《古文字研究》第21輯
- 劉 雨 2002 〈金文研究中的三個難題〉，《古文字研究》第23輯
- 葉正渤 2002 〈月相和西周金文月相詞語研究〉，《考古與文物》2002年 第3期
- 葉正渤 2004 〈20世紀以來西周金文月相問題研究綜述〉，《徐州師範大學學報》，第30卷
第5期

《中文提要》

西周金文月相詞語研究, 是金文研究的重要課題, 也是西周年代學研究的基礎。西周金文中的月相, 有初吉、既生霸、既望、既死霸、旁死霸共五種, 其中前四者常見, 旁死霸目前只發現于西周晚期的晉侯蘇鐘一見。傳世文獻中的月相與金文所見互有異同。月相包含的時間, 說法不一, 但歸納起來, 不外乎定點, 四分, 二系三種說法。定點說認為月相只指一月中某一日。四分說認為月相詞語把一個月分為四個時間段, 每段各包括七、八天時間。所謂二系說, 是指認為月相詞語把一個月分為不同的時點和時段。從金文資料和傳世文獻所反映的情況來看, 筆者認為月相四分說或近似的說法可以採用, 以月相定點說難以成立。

關鍵詞：西周金文, 月相, 定點說, 四分說, 二系說